

PRESSBOOK

Michael SAILSTORFER

Vogue Korea

August 2016



Vogue Korea
August 2016

MICHAEL SAILSTORFER IN BERLIN

미하엘 자일스트로퍼에게 예술이 아닌 건 없다. 광범한 것도 그의 사유를 거치면 비범한 작품이 된다. 어떤 것도 예술이라는 식의 엉뚱한 작품을 대하는 관객들의 황당한 반응까지도 말이다.



이방가르드한 실루엣의 벨룬 드레스, 워커는 루이 비통(Louis Vuitton).
모델 / 지현정 헤어 / Noriko Takayama@Close Up 메이크업 / Gabrielle Theurer@Basics 프로덕션 / 배우리(Woori Bae)



Vogue Korea
August 2016



벨트로 가슴 라인을 강조한 재킷은 루이 비통(Louis Vuitton).



Vogue Korea
August 2016





Vogue Korea
August 2016





Vogue Korea
August 2016



예술 실험가

지난 4월 말 베를린에서는 '갤러리 위켄드'라는 행사가 열렸다. 그중에서도 가장 열띤 호응을 얻은 이벤트는 패션 브랜드 코스(Cos)의 자리였다. 코스를 이끄는 디자이너, 카린 구스타프슨과 마틴 앤더슨은 베를린을 매우고 있는 창의적인 기운과 예술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전사를 보내기 위해 미하엘 자일스트로퍼와의 협업을 결정했다. 검은 쇠망으로 만든 구름 형상의 작품 'Silver Cloud'가 공개되는 날, 이들이 말했다.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으로 바꾸는 미하엘의 기술과 시선이 흥미로워요." 카스텐 니콜라이 이후 4년 만에 협업자로 선택된 예술가, 미하엘 자일스트로퍼는 주류와 비주류, 상업과 예술의 이분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도시의 고유함을 대변한다. 베를린 프렌츠라우어 베르크 지역의 고요한 변두리, 바이센제에 위치한 미하엘 자일스트로퍼의 아틀리에에는 매우 역사적인 공간이다. 초기 독일 영화의 선구자였던 조 메이(Joe May)의 스튜디오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배우 마를린 디트리히가 데뷔한 곳이라는 소문도 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높은 아치형의 천장과 자연광이 그때나 지금이나 젊은 아티스트들의 전유물이라는 사실이다.

독일 조각가들 사이에서도 미하엘 자일스트로퍼는 단연 주목할 만한 개념 미술가다. 그는 일상의 흔한 시간이나 물건에 집요한 호기심을 품고 있다. 자연, 기술, 도시, 예술 등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물건은 그의 사유를 거쳐 새로운 정체성을 갖추게 된다. 여기서 물건이란, 이를테면 고무 타이어, 튜브, 기계 조각, 나뭇조각 같은 것들. 무엇보다도 그는 이런 물건들이 작품이랍시고 놓였을 때 관객들에게서 나타나는 황량함과 짜증 같은 반응을 즐긴다. 예술이 플라임시키는 다양한 감정과 감각을 실험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조각의 영역은 무한대로 확장된다.

작가 스스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작품은 약간 못그기까지 하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예술가였던 아버지의 석조 공장 주변에 숲을, 그는 작업실로 활용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엄청난 압력의 공기를 주입한 파이프를 이용, 상공 6m 위로 여덟 그루의 나무를 미사일처럼 쏘아 올렸다. 엉뚱한 장소에서 펼쳐지는 엉뚱한 상황 자체를 작품으로 삼는 그의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파리 페로탱 갤러리의 벽을 직각으로 누운 채 햇빛을 드릴 삼아 벽을 뚫는 자유의 여신상도 만들었고, 구리로 만든 미로에 산성 용액을 부어 지리학적인 무늬를 얻어내기도 했다. 버스 정류장은 단칸방으로, 숲의 일부는 구성주의 예술로, 기로등은 애무하는 커블로, 타이어들은 센트럴 파크를 떠다니는 구름으로 변모시키는 '재해석 전략'을 통해 그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각을 유틸 있게 고집한다. 급기야 작품 'Folkestone Digs'를 통해서도 아예 관객들을 작품의 일부로 만들어버렸다. 금 덩어리 수십 개를 어느 해변의 모래사장에 묻고는 이 사실을 널리 알렸다. 관객 인지 구경꾼인지 모를 사람들이 몰려들어 금을 수색했다. 그 인간 각자가 가진 믿음, 사상, 행동의 반경을 작품으로 탐바꿈하게 한 것이다. 이 공간에서 성공에 대한 욕망보다 무방비 상태의 자유로운 창의력이 먼저 느껴진 건 당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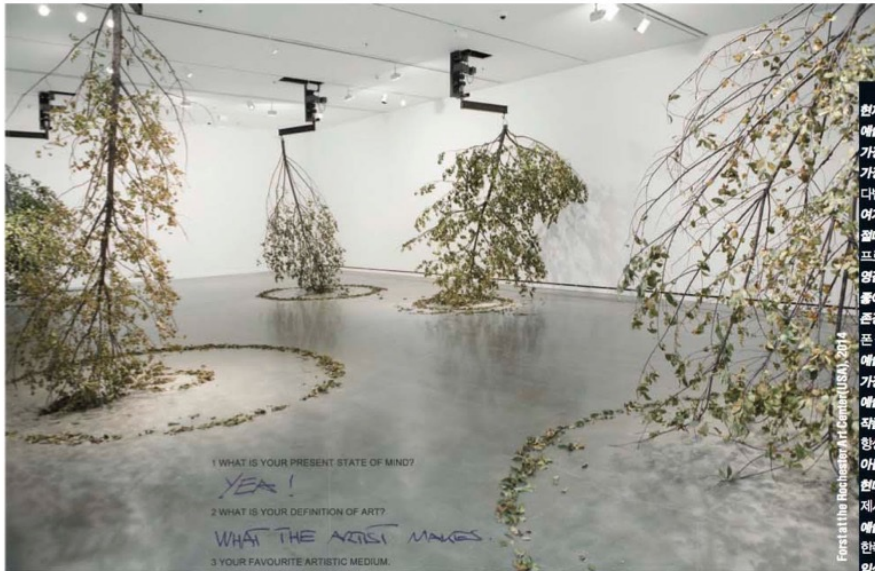


Exhibition View, Galerie Perrotin Paris, 2013

PHOTO: K. ANSCHUTZ, S. BILBERGER,
COURTESY OF ARTIST, GALERIE PERROTIN



Vogue Korea
August 2016



현재의 심경은? 예!
 예술을 정의하자면? 예술가가 만드는 것.
 가장 좋아하는 매체는? 조각.
 가장 좋아하는 역사 속 예술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기서 작업하는 이유는? ♥배를린.
 절대 잊지 못할 전시는?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1987).
 영감은 무엇에서 오니? 음악.
 좋아하는 / 싫어하는 예술적 스타일은?
 존경하는 예술가는? 미국의 과학소설가인 마르크 폰 슐레겔(Mark Von Schlegell).
 예술을 생각하게 된 가장 좋은 장소는? 해변과 차.
 가장 좋아하는 예술적인 시기는? 르네상스.
 예술가로 살게 된 계기는? 생각하고 행동했을 뿐.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작품은 항상 다음 좋은 작품에 대한 것이다.
 아틀리에에서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점심시간.
 현대성을 정의하자면? 예술 작품은 매일의 뉴스를 제시해야 한다.
 예술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용구는? 나는 매일 한쪽 귀를 질러낼 수가 없다.
 일상스케줄? 매일 같지 않다.
 가장 좋아하는 작업의 순간은? 진행 과정.
 본인 작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매우 좋다.
 최우명? 예!

- 1 WHAT IS YOUR PRESENT STATE OF MIND?
YEAH!
- 2 WHAT IS YOUR DEFINITION OF ART?
WHAT THE ARTIST MAKES.
- 3 YOUR FAVOURITE ARTISTIC MEDIUM.
SCULPTURE
- 4 YOUR FAVOURITE HISTORICAL ARTIST.
LEONARDO DA VINCI
- 5 THE REASON YOU ARE WORKING HERE.
BERLIN
- 6 THE EXHIBITION YOU WILL NEVER FORGET.
SKULPTUR PROJEKT MÜNSTER 1987
- 7 YOUR INSPIRATIONS.
MUSIC
- 8 THE ARTISTIC STYLE YOU MOST LIKE AND DISLIKE.
- 9 AN ARTIST (NOVELIST, MUSICIAN...) WHOM YOU ADMIRE.
MARK VON SCHLEGEL
- 10 YOUR FAVOURITE PLACE TO THINK ART.
BEACH OR CAR
- 11 YOUR FAVOURITE ARTISTIC PERIOD.
RENAISSANCE



- 12 WHAT INSPIRED YOU TO PURSUE A CAREER IN THE ARTS?
THINK AND DO.
- 13 WHAT YOU WANT TO CONVEY THROUGH YOUR WORK.
IT'S ALWAYS ABOUT THE NEXT GOOD PIECE.
- 14 YOUR FAVORITE MOMENT IN YOUR STUDIO.
LUNCH
- 15 WHAT IS YOUR DEFINITION OF CONTEMPORANEITY.
THE NETWORK HAS TO HOLD UP DAILY NOUS.
- 16 WHAT IS YOUR FAVOURITE QUOTATION ON ART?
I CAN'T CUT OFF AN EAR EVERY DAY.
- 17 YOUR DAILY SCHEDULE.
NEVER THE SAME.
- 18 YOUR FAVOURITE MOMENT WHILE WORKING.
PROGRESS
- 19 EXPRESS YOUR WORK AS ONE SENTENCE.
VERY GOOD ✓
- 20 YOUR MOTTO.
YEAH! ✓